

연중 제21주일

제1독서 : 이사 22, 19-23

제2독서 : 로마 11, 33-36

복 음 : 마태 16, 13-20

순정이

“너찍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 15, 28)

강론

소리

지금까지의 우리 삶은

이수현 신부 / 여산 천주교회

예수께서는 결정적 구원의 장소에 가까운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를 때까지, 권위있는 말씀과 비유를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신비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참삶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당신 자신의 신원과 성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셨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위한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의 필연성을 강조하여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느님 나라와 성부의 뜻을 찾고, 영생을 위한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을 원치 않았다. 그들이 예수를 따른 것은, 허기진 배를 채워 일시적인 포만감에 빠지는 행복을 찾으려는 것이었고, 성자의 말씀은 자신에게 닥친 현재의 고통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한 마디로 인간들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성자를 이용하였을뿐, 성자에게서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육체적인 포만감을 주는 빵도 그리고 현실적인 당장의 고통을 피해가는 수단도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 둘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곁에는 12제자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자 인간적으로 커다란 공허감에 빠지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당신 곁에 남은 12제자에게 묻는다. 긴장된 침묵이 잠시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하고 큰 소리로 고백한다. 실망과 공허감에 빠지신 예수님께 코끝이 찡한 감동의 신앙고백이 아닐 수 없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묻는다면, 과연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었는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용서하기 용서받기

아주 어리거나 아예 제 일 책임지는 어른이거나 이들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없는 나이, 미성년 상태 청소년기를 흠없이 보내기란 참 쉽지가 않다.

부모도 나름대로 그 시절을 겪어보냈으면서 기억에 회미하고 돌이켜 무슨 대책이 없었어보여서 그 나이 자식에게는 솔직하게 말해서 겁이 난다고나 할까.

타일러도 보고 혼도 내보고 짐짓 우는 척 괴로움을 내비쳐도 본다. 그래도 비뿔어질 자식은 어김없이 그렇게 되고 만다. 그러다가 제 나이대로 어른이 되면 또 그럭저럭 해결이 난다. 이런 것이 인생인가!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까지나 미성년이라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신앙인이 어머니신 교회 앞에서 말썽쟁이 자식노릇으로 속을 썩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란다면 그것도 말이 될랑가? 가출했다가도 멀리서 집에 전화해서 안 죽고 살았다고 하는 정도면 용서할 만하다면, 안 믿는 이만도 못한 개차반 신앙생활로 교회 낫뜨겁게 하면서도 밑바닥에 마지막 무언은 남아서 뉘우치고 끝내는 고해성사를 스스로 한다면, 그도 용서받을 인간이겠다.

아마도 인간은 날 때부터 고향찾아가는 실항민이 아닐까. 유독 그 길을 어렵게 더듬어 가는 축도 있겠고 순탄하게 걸어가기도 하는 경우 또한 있으리라.

어머니신 교회는 부디 오래 저희 인간 인종을 참아주소서. ☐

순정이 산책



2000년 대희년

청소년 신앙교육

박찬길 신부 / 사목국장

1. 이제 불과 몇 년 만 지나면 대망의 2000년대가 시작된다. 교황님은 다가오는 2000년을 교회의 '새로운 봄'이라고 부르시면서 모든 신앙인들이 '새로운 복음화'에 투신할 것을 거듭 촉구하셨다. 21세기, 새로운 천년기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교회는 그 준비에 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신앙실태는 어떠한가?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자.

2. 지난해 11월 '가톨릭 신앙생활 연구소'가 서울 대교구 어느 본당의 청소년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교회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에 응한 청소년 1,119명 가운데 현재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 21.9%이고,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77.2%였다. 주일학교 출석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1/3에 못미치고 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1/5이 채 안되는 19.4%에 그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주일학교 불참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치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 초등부 불참률이 55.4%인데 비해, 중등부 불참률은 86.6%, 고등부로 올라가면 87.6%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중·고생의 주일학교 불참 이유를 단순히 진학준비 학업과 밀접하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할 위험이 있다.

3. 그렇다면 청소년 절대다수가 주일학교를 외면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가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학교 공부 때문이었으나 청소년 자신이 주일학교를 기피하는 이유는

부모들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일학교에 나가지 않는 이유의 첫째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로 17.4%, 둘째로 '별로 얻는 게 없다고 생각되므로'가 14.9%, 그 다음은 '취미활동이나 놀러가기 위해'가 10.9%, 그리고 네 번째가 '학교 공부 때문'이 10%였다. 이 밖에 1/10에 조금 못미치는 9.2%의 청소년이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주일학교에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를 진학 준비와 학업에 갖다 붙이기에 무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4.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지레 짐작하듯이 '학업의 부담'만이 청소년들이 주일학교를 멀리하고 있는 이유가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청소년들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과 그들 위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때, 교회에 외면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발길을 교회와 주일학교로 향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5. 끝으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교리교육」의 다음 말씀을 상기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 사목 활동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게 됩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무수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것도 잠시 스쳐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분을 맺고 나날이 더 깊이 더 분명하게 그분을 알도록 해 주는 길은 무엇인가? 그분은 물론이요 그분의 메시지, 그분이 계시하신 하느님의 계획, 그분이 인간 각자에게 내리시는 부르심, 그리고 하느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의의와 취지, 근본요건과 사랑의 법, 약속과 희망을 알게 할 수 있는가?"(현대의 교리교육, 35항)

<p>연지곤지 웨딩 이벤트 드레스 35만~40만원 (신부화장, 부케, 폐백옷 무료) 유순이(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앞 ☎ (주)82-2347 (야)225-5755</p>	<p>수원 조경 조경설계, 잔디, 자연석 묘지공사, 주택조경, 특수조경 진일탁(세레자 요한) 조명한(프란체스카) 약수터 앞 ☎ (0652)86-5599, FAX87-9192</p>	<p>기아·아시아 딜러 영업소 송수환(다니엘) 이영자(아녜스) 시트카바, 선팅, 적회원보강동 10이까지 선동, 신자분보유 중고차감정 및 이진, 검사, 폐차대행 ☎ (0652)225-0015 (전화문의 환영)</p>	<p>선경 컴퓨터타운 삼성,삼보 및 SKC 컴퓨터 총판 이병균(프란치스코) 정미선(글라라) 평화주공 1단지 입구 ☎ (代)231-2237</p>
----------------------------------------------------------------------------------------------------------------------------------	-------------------------------------------------------------------------------------------------------------------------------------	------------------------------------------------------------------------------------------------------------------------------------------------------------	-----------------------------------------------------------------------------------------------------------------

잡간

가정에서 먼저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의 부도덕화와 상품화, 성과 사랑의 분리 등으로 성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틀림없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 개방과 성도덕의 문란은, 책임이 수반하지 않는 사랑의 불장난에 쉽사리 빠져들 위험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성에 대해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관념에 익숙해 온 기성세대에게는 성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더 이상 성 문제를 비밀스럽고 은근하게 알아가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지를 않는다. 눈만 뜨면 어디에서나 성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몸짓이나 노골적인 애정 표현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텔레비전의 대담한 러브신과 컴퓨터를 통한 선정적인 성표현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 방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자녀들에게 그저 윤리도덕만을 강조하며 성을 얘기하기를 꺼려한다면 이미 성적으로 충분히 자극되고 호기심에 가득찬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겠는가?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술 먹는 일은 허용하되 바른 태도를 배우게 한다는 뜻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은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물음만 제기할 것이 아니다. 성교육을 위한 자료와 책을 구하기 위해 서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성지식을 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모범적인 부부생활을 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의 모습에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1. 교구장 성서사도직협의회 총회 참석 : 8월27일~30일, 수지 성모교육원
 2. '성서교실' 개강 : 전주-9월5일(목), 군산-9월3일(화), 익산-9월2일(월)
 3. 상설교백소 : 9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전동 성당
 4.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하계수련회 : 8월28일(수) 오전10시
천호성지 밤나무 숲
 5. 정성만 신부 주소 : ☎ 645-600 경남 진해시 진해유체국 사서함 32호
진해 해군 성당 ☎ (0553)545-1003
 6. 정삼권 신부 주소 : ☎ 502-270 광주시 서구 치평동 사서함 1-2호
상무대 성당 ☎ (062)371-5611
 7. 은혜의 밤 철야기도 : 8월30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 ※ 축영명! : 28일(성아우구스티노) 한정현, 이동, 김봉술, 여혁구 신부님

요십이 (1200) 김병오



사무장 구함

1. 자격 : ① 영세한 지 3년 이상(남) ② 운전면허 소지자 2. 제출서류 : 자격이력서(연락처 명기) 사진부착, 세례증명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3. 서류접수 및 문의 : 동산동 천주교회 ☎ 212-3231, 212-3232

여사무원 구함

1. 자격 : 영세한 지 3년 이상, 고졸 이상, 컴퓨터 유행경험자 2. 제출서류 : 이력서, 세례증명서 각1통(본당신부 면담) 3. 기간 : 8월25일까지 4. 접수처 : 인후동 성당 사무실 5. 연락처 : 242-5022 인후동 천주교회

한국외방 선교 수녀회 성소 모임

- 일시 : 9월1일 오후2시
- 장소 : 부산 부곡동 수녀원
- 문의 : (051)514-1773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산13-24

제2기 자원봉사자 학교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 9월9일~11월11일 (매주 월요일 오후1시30분~4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교육비 : 30,000원
- 접수 : 8월15일~9월5일
- 문의 : 사회복지회 ☎ 84-5290

초대합니다 송천동 제2성전 신축 바자회

- 일시 : 9월12일(목)~15일(일)
- 장소 : 송천동 시호아파트 앞 시호주정(주) 서림원
- 주최 : 천주교 송천동 성당 제2성전 신축 추진위원회 ☎ 74-1004

관리장·사무원 구함

- 관리장 자격 : 영세한 지 3년 이상(남), 대형면허 소지자, 고졸이상
- 사무원 자격 : 영세한 지 3년 이상(여), PC유행경험자, 고졸이상
- 문의 : ☎ 232-5005, 5001
평화동 천주교회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 무 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 배
F A X 82-9664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1. **축! 영명**: 홍모니카수녀님(27일) 짧은 기도바람.
*축하식: 오늘 공식미사 후
2. **잠우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모임**: ①천사의 모후Cu. - 오늘 공식미사 후
②제축형제회-오늘, 후 2시
③제대회-28일 어머니미사 후
④홀드레야, 기우회-1일, 공식미사 후
4. **송천동 제2심전 신축 바자회 티켓판매**: 1장 1,000원-사무실
5. **금주 전례**: 새벽-인후1구역, 저녁-인후2구역
공식 안내-성우회, 해설-손만술
독서-①전자석 ②양선순
신자들의 기도-한기성, 윤경자
봉헌-오점엽 부부
6. **차주 전례**: 새벽-중노1구역, 저녁-중노2구역
공식 안내-장우회, 해설-이봉기
독서-①이용관 ②서성남
신자들의 기도-최철영, 문하형
봉헌-장성복부부
7. **금주 청소**: 동진 2반, 남노 1반
8. **차주 청소**: 남노 2,3반

□ 지난주 봉헌금: 1,077,630원 □ 교무금: 967,500원

***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 무 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범부

1. **세례식**: 9월21일(토) 후 7시, 본당
*동신교리자는 신부님, 수녀님께 연락 바람.
2. **선교세미나**: 9월22일(일) 후 2시, 본당
*전신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금주 모임**: 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유아방
4. **차주 모임**: ①꾸리아-9월1일(일) 후 2시, 성전
②사목회-9월3일(화) 후 8시30분, 사무실
③자모회-9월5일(목) 레지오 회합후, 회합실
5. **반모임**: 26반-이용림(안나)씨때, 후 7시30분, T.82-9443
6. **금주 전례**: 공식미사 해설-전병구(비오)
독서-①이재호(리차드) ②이상희(엘리사벳)
7. **청소 안내**: ①금주-평화의 모후Pr.
②차주-정의의 동정녀Pr.

□ 지난주 봉헌금: 935,800원 □ 교무금: 1,469,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 무 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박상기

1. **복자 성서교실**: 27일(화) 오전반-10시, 저녁반-8시,
준비물-성서, 성가, 필기도구
 2. **병자 봉성체**: 30일(금) 후 2시
 3. **유아 세례**: 31일(토) 후 7시
 4. **성소후원회비 납부 주일**: 9월 1일(다음주일)
 5. **주간 모임**: M.E 모임-30일(금) 후 7시 30분
 6. **차주 모임**: ①성우회, 대견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저녁미사 후
 7. **북한 수재민을 위한 성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기, 신일관, 송병숙, 강세신, 안경매-각 3만원,
황만규, 김경순, 김순형, 익명-각 2만원,
유두석, 서봉희, 김수인, 박병숙, 유순자, 이경호, 김영환, 박여정,
오교성, 조철래, 김인봉, 최남희, 이순남, 유관숙, 차정자, 강신혜,
익명-각 1만원,
한정남, 김학필, 익명, 김정철, 박복순-각 5천원,
송병숙-3천원,
임부진, 허계석-2천원, 김윤튼-1천원
 8. **금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신일관 부부
봉헌-한용석 가족
 9. **차주 전례**: 해설-최남희, 독서-구본창 부부
봉헌-김영기 가족
 10. **성당 청소**: 31일(토) 다위의 탐Pr., 셋별Pr.
- 지난주 봉헌금: 715,100원 □ 교무금: 786,500원

*** 상 관** 주임신부 85-6654 사 무 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실
F A X 85-6652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강덕용

- ◎ 본당발전을 위한 2차헌금: 오늘 있습니다.
1. **금주 모임**: ①자모회, 성모회-공식미사 후
②성마리아Co. -전동성당
 2. **차주 모임**: 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
 3. **축! 꾸르실료 수료**: 김순희(미카엘라)
 4. **3차 구역장 교육**: 9월 4일(수) 10시, 윤호관
 5. **성당 청소**: 금주-바다의 별Pr.,
차주-천사들의 모후Pr.
 6. **금주 전례**: 해설-이준봉, 독서-①이옥동 ②김금자
봉헌-강재석 가정
 7. **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강덕용 ②김순희
봉헌-박용선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59,550원 □ 교무금: 355,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무 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송영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한

1. **금주 모임**: ①교무금 납부주일
②성 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2. **차주 모임**: ①성 가정회-전 11시
②제축 글라라 행제회-후 1시 30분
③애덕의 모후 꾸리아-후 3시
④요셉회-후 6시
⑤홀드레야-후 8시
 3. **감사 헌금**: 이천이(세실리아) 오만원-감사합니다.
 4. **고정 전례 안내**
①교백성사-평일미사 후
②혼인담당-매주 토요일 후 4시
③성체장복 및 조배-매월 첫 목요일 전 10시
④병자 봉성체-매월 첫 금요일 후 2시
⑤유아세례-홀수달 둘째 토요일 후 2시
⑥차량 축복식-홀수달 마지막 주일 공식미사 후
- *성지 개발 헌금 정성껏 봉헌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302,870원 □ 교무금: 2,855,000원
□ 성지 개발 헌금: 39,940,000원

***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녀원 232-5004 주임신부 이상섭
F A X 232-5003 사 무 실 232-5005 사목회장 감삼근

- ◎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9월1일 공식미사 후
- ◎ 평화성전 기공식: 9월8일, 10시30분
신축부지에서 주교님 집전-미사 및 축성식-음식 나눔잔치
1. **사목회 임원단합대회**: 오늘 공식미사 후(부,차장), 성덕다리
 2. **성전신축을 위한 모임**: 후 8시, 성당 ①27일-1구역 ②28일-2구역 ③29일-3구역 ④30일-4구역 ⑤5구역-9월3일 ⑥6구역-4일 ⑦7구역-5일 ⑧8구역-6일 ⑨9구역-10일 ⑩10구역-11일
 3. **봉성체**: 28일, 성당에서 전동쪽
 4. **오늘 모임**: ①봉성회-공식미사 후 ②홀드레야-후 7시
 5. **주간 모임**: ①형제기도회-26일(6구역), 29일-8구역, 8,9반 ②빈첸시오회-27일 ③M.E나눔모임-27일 후 8시, 회관 ④자모회-30일 ⑤성가대원 회의-30일 후 8시
 6. **차주 모임**: ①평화의 여왕Cu. ②성지회
 7. **농촌돕기 무궁해 쌀 판매**: 9월 1일 매 미사전, 후
 8. **성전신축봉헌금신입구좌(1구좌: 100만원)**: 박한석5, 윤철현5, 이생구3, 윤미자1.5, 박성근1, 소계: 15.5, 총계: 258.8 *성전신축 봉헌금 납부: 김민정300만, 이정기200만, 김종성20만, 이생구20만, 김봉근15만, 김옥희10만, 김영림10만, 이기원10만, 김학근3만, 김정희3만, 박성근2만, 안정숙2만, 김정일2만, 황호경1만, 소계: 598만원, 총계: 32,644,700원
 9. **감사합니다**: 성모승천헌금 1,004,300원,
제대꽃봉헌-익명 3만원
- 지난주 봉헌금: 1,685,140원 □ 교무금: 2,061,000원